

홀트소식

SPRING
2026

VOL.220



www.holt.or.kr



이웃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소식

홀로 서야 했던 그 순간에도
꿈을 놓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들,
그들이 직접 전하는 현실과 꿈,
그리고 함께라서 가능한
내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2



아동·청소년복지

- 10 다시 이어진 마음, 다시 이어진 가족
- 12 '꿈과희망, 함께 써 내려간 성장의 기록'

한부모가족복지

- 14 청소년한부모 곁에 선 든든한 수호천사
- 16 배움이 자립이 되도록 단단하게 한 걸음씩

자립준비청년 특집

- 04 홀로 서야 하는 열여덟, 그 걸음이 혼자가 아니도록
- 06 '보통의 청년'들이 여는 자립의 문
- 09 여러분의 내일이 찬란히 빛나길...

06



18



장애인복지

- 18 희망을 연결하는 RE:PLAY, with 홀트
- 21 예술로 피어나는 가능성, 아르떼아카데미

지역사회복지

- 24 아동의 놀 권리 지키는 '오늘은 노는 날!'
- 26 나눔과 배려가 꿈나무처럼 자라는 교실

국제개발협력

- 28 캄보디아에서 이어온 15년, 꿈이 현실로

캠페인

- 30 '아빠의 눈이 된 아이들'

32



나눔스토리

- 32 달릴수록 커지는 사랑, 밸런타인데이 기부런
- 34 졸업,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
- 36 더 많은 파랑새가 날아올 수 있도록
- 38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 태원이의 한 걸음
- 40 나눔으로 더 빛난 가장 행복한 결혼식
- 42 홀트 가족의 든든한 이웃, 주님의 교회
- 44 HOLT NEWS
- 48 2025년 운영결산보고

28



통권 220호(계간) / 발행일 2026년 4월 24일 / 발행인 김정오 / 편집인 신미숙 / 발행처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 후원문의 02-331-7073~6 /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좋은 제언 pr@holt.or.kr /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좋은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신'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원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신 전환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신 방법을 변경하거나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 주세요.

홀로 서야 하는 열여덟,

그 걸음이 혼자가 아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현재와 함께 만들어갈 지원 체계

보호 종료와 동시에 세상 앞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들. 그들의 현실을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로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짚어 봅니다.

글: 홍보팀 정진숙

일회성 지원에서 장기적 동행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2025년 자립준비청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에서 7,395명이 아동양육 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2019년 자립수당 제도 도입과 LH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2026년 현재, 자립수당 인상, 지원 연령 연장,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충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정착금 지급에 머물렀던 과거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교육·취업·정서, 여전히 넘어야 할 현실
그러나 제도 확장이 곧바로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여

전히 넘겨지 못한 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이 발표한 <2024년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에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2%)이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살 돈이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취업 정보 및 기술 자격 부족(27.2%), 생활비 및 학비 부족(25.8%) 등을 꼽았습니다. 이는 현행 자립 지원 정책이 주거·소득 중심을 넘어, 취업 준비와 생활역량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초기 지원 없으면 빈곤·고립 고착
또래 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립준비청년의 출발선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70만 원으로, 일반 청년(266만 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취업 지원제도가 존재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이력서 작성·면접 준비를 도울 사람이 없어 기회를 놓치는 경

우가 많습니다. 구직 실패는 주거비 미납, 정서적 고립,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절반 이상(51.3%)이 서비스직·판매직·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응답률은 40.7%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63.6%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채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보호종료 초기 몇 년간이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 구간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곤과 고립이 고착됩니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 필요
자립지원 전담기관 담당자 B 씨는 “지원 받기 위해 찾아올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립이 된 아이들에게요. 가장 힘든 아이들이 제일 먼저 포기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보 격차, 심리적 장벽, 이동 수단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착 가장 어려운 청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촉진을 위한 자립수당·정착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2025)에서 자립수당·정착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수당 지급 종료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 보호종료 직후 찾아가는 사례관리 의무화
-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법제화
- 정서·심리상담 바우처 확대
- 민관 협력 취업연계 프로그램 강화
- 지원 연령 상한(현 23~24세)의 탄력적 적용

이러한 변화는 복지 확장을 넘어 보호를 마친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조건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꿈을 찾는 청년들

홀트아동복지회는 자립준비청년이 꿈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 속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반영하여 교육·취업·정서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설계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보호시설을 떠난 청년들이 사회로 발을 내딛는 순간만큼은, 그들이 홀로 서지 않도록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현장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이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홀트아동복지회가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청년들의 걸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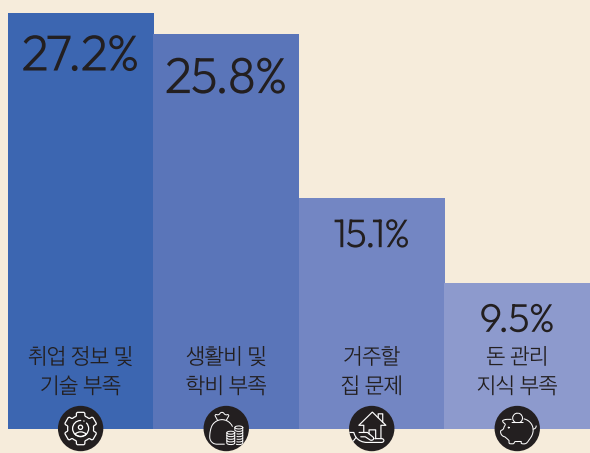
청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사회 속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홀트아동복지회가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청년들의 걸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내용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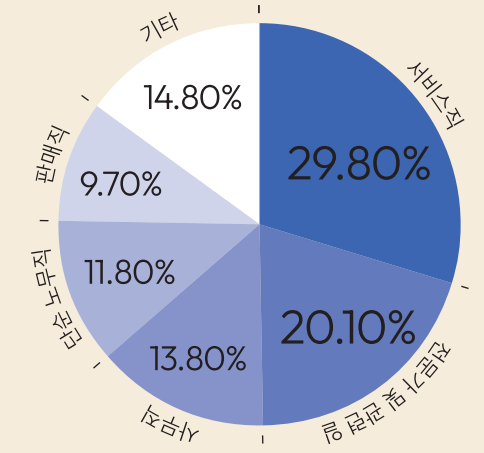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 성과 (2025 기준 연인원)
런런 챌린지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	605
드림플러스	자립준비청년 교육 지원	742
위드유커뮤니티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	500
드림하이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해외봉사활동	82
머니의 참견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지원	73
런런 투게더(런런 FS)	자립준비청년 직업전문성 강화 지원	208

보호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유형 분포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보통의 청년’들이 여는 자립의 문

자립준비청년 3인의 알찬 수다, 「홀머든 다락방」 영상 촬영 현장 스케치

홀트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꿈을 키워온 3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20대와 다름없는 평범한 청년들은 토크 영상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홀트라는 안전망 속에서 변화된 삶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홀트와 함께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임을 깨달았던 그날, 훈훈한 울림이 가득했던 영상 촬영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글·사진: 홍보팀 남지인

별명으로 허문 마음의 벽

처음엔 낯선 설렘만큼이나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분명 대신 ‘티라노’, ‘아무늬보’, ‘카페인중독자’라는 서로의 별명을 부르면서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의 별명을 추리하며 웃음이 오갔고, 배달 음식을 함께 고르는 모습은 영락 없는 요즘 청년들이었습니다. 음식 주문을 마친 뒤 대화는 자연스럽게 요즘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유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핫플레이스나 구독 서비스에 대한 로망을 나누며 가볍게 시작된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유행을 좇고 싶어도 현실적 생활비로는 늘 선택의 순서를 정해야만 했던 고민은 곧 각자의 ‘자립’에 대한 진솔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막막했던 홀로서기의 순간들을 주고받는 사이, 어느새 카메라는 잊은 채 촬영 현장이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위로를 얻는 청년들만의 아지트가 되어갔습니다.

삶의 이정표가 된 소중한 추억들

가장 인상 깊었던 순서는 각자 홀트와 연결된 소중한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청년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저마다의 소품을 소중히 꺼내 보였습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홀트의 지원을 받았던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생계의 불안을 털어내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해준 ‘확신의 증거’이자, 막막했던 미래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준 ‘가능성의 열쇠’였습니다. 또한, 도움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따뜻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물건 속에 담긴 사연들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 안에는 공통으로 ‘나를 더 믿게 된 용기’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홀트와 연결된 소중한 물건들. (왼쪽부터) 봉사 현장에서 받은 몽골 아동의 편지, 풋살대회 우승 금메달,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오해는 유쾌하게, 응원은 단단하게

본 촬영 후 이어진 ‘OX 퀴즈’에서도 유쾌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에서 집을 무상으로 준다(X)’,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이 있다(X)’ 등 사회가 가진 편견들을 퀴즈로 풀어나가며, 시청자들이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늘 도움을 받기만 했던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홀트가 처음 알려줬어. 그 용기로 시작한 봉사에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얻고, 나눔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어.



6시간의 촬영 끝에 남겨진 단체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에는 처음의 긴장 대신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립이라는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과 연결해 주는 다락방이 되어 함께 걸겠습니다.

홀트는 나의 진로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소중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어.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를 북돋아 주며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주변에 너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들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원동력 삼아서 네 꿈을 위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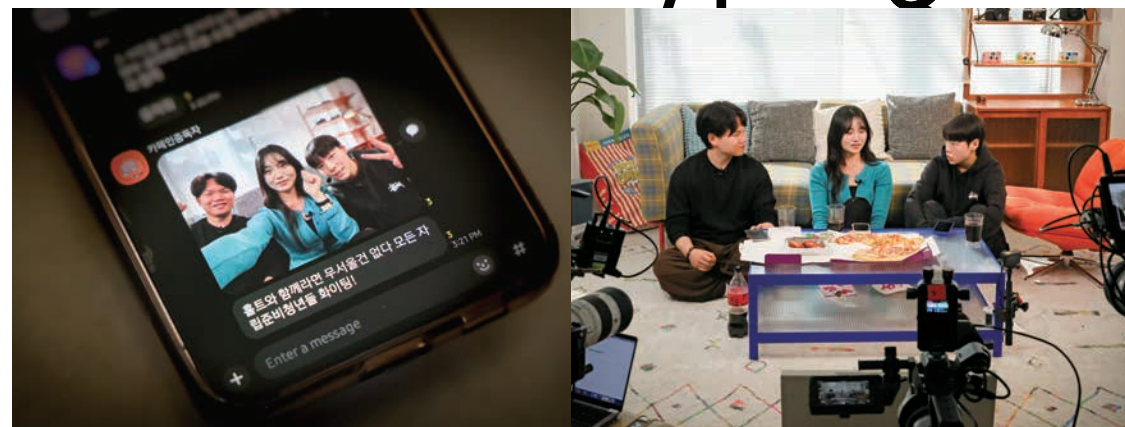


세 청년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홀트아동복지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웃음과 감동이 가득했던 토크 영상 본편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당연한 홀로서기를 영상으로 직접 응원해 주세요!

올머문 다락방 편



여러분의 내일이 찬란히 빛나길...

자립준비청년의 꿈 곁에 선 두 후원자가 전하는 따뜻한 응원

오시훈 탐리더스 위원

“여러분의 힘겨운 오늘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결코 가로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을 스스로 걸어온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환경은 출발선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결승선까지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수없이 넘어지고 돌아가는 길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버팀이 내일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제가 후원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김기범 탐리더스 위원

“곁에서 함께할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마주하더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곁에서 함께할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꿈꾸도록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의 일상이 흔들리고, 안전한 공간과 정서적 안정을 잃은 아이들은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가족 울타리이음’과 ‘우리가족 마음이음’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가족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글·사진. 아동청소년지원팀 배지수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회복을 돕는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 ‘우리가족 마음이음’

다시 이어진 마음, 다시 이어진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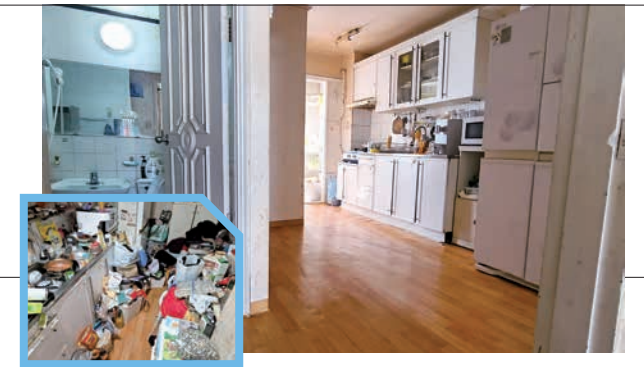
우리가족 마음이음 - 가족의 날 요리체험 활동



※ 해당 이미지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 안방 개선 전(왼쪽 하단 사진)과 개선 후의 모습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 주방 개선 전(왼쪽 하단 사진)과 개선 후의 모습

안전한 공간에서 시작되는 변화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학대피해아동 가정에게 특수청소, 정리수납, 도배와 장판 교체, 가전·가구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와 해충 방역, 생활공간 정비 등을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환경이 변하며 가족의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참여 가정 대상 스트레스 검사 결과, 참여자의 79%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했으며 스트레스 평균 점수도 사전 67점에서 사후 57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참여 가정의 95%가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모든 참여자가 주거환경 개선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이 공간 정비를 넘어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집에서 다시 시작된 일상

주거환경 개선 이후 아동들의 반응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동들은 “집이 깨끗해지고 제 방이 생겨서 좋았다”, “좁고 더러웠던 집이 밝고 넓어져서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붕이 뚫리고 조명이 어두웠던 집에서 생활하며 불안을 느꼈던 아이들은 새롭게 정리된 공간에서 안정감을 찾고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 변화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양육자 역시 변화된 환경에서 가족과의 일상을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양육자는 “청결하지 못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원 이후 가정 내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가족이 함께 생활환경을 정리하려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음을 돌보며 다시 가까워진 가족

‘우리가족 마음이음’은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부모교육,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대 후 유증을 완화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돕는 심리·정서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며 가족 전체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계부와 친모 사이의 잦은 갈등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아동이 지속적인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은 부모 갈등을 중재하려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은 심리치료와 ADHD 진단 및 치료를 받으며 행동 조절력이 향상되었고, 계부 역시 분노조절 상담과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부부 갈등이 완화되고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과 마음의 회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 마련될 때 아이들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심리적 지지를 통해 가족은 다시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가족 울타리이음’과 ‘우리가족 마음이음’ 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꿈과희망'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18년째 그 결을 지키며,
 수많은 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성장해 온 '꿈동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글·사진: 아동청소년지원팀 백슬

▶▶
 18년째 이어온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육비 지원사업
 '꿈과희망' 이야기

'꿈과희망', 함께 써 내려간 성장의 기록



2024년 꿈과희망 여름 캠프 장면



미래의 피아니스트 꿈동이



미래의 IT 꿈동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후원자님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저의 실력을 키우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끈기와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후원자님의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함께하는 가치를 느끼며, 저도 미래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IT와 마케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교육 지원 같은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후원자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후원자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제 삶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꿈과희망' 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학업과 진로 설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선·정혜영 부부의 후원으로 첫 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고액후원자 모임 탐라더스와 100주년기념교회의 후원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인 지원과 사례 관리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으로 채워진 성장의 현장
 2026년 '꿈과희망'은 110명의 청소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예체능, 이공계, 의료, 교육,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동이 장학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과 특기, 진로에 집중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꿈과희망은 장학금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며 성장합니다. 특히 여름캠프는 꿈동이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키워 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캠프에서는 진로 특강, 졸업생 꿈동이의 만남, 레크리에이션, 문화 체험활동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년에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서로의 꿈을 나누고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꿈과희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꿈동이들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꿈동이가 더 넓은 기회와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꿈꾸는 여정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마음을 모아 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청소년한부모 신규사업,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청소년한부모 곁에 선 튼튼한 수호천사



학업과 진로라는 사회적 과업과 양육자의 역할, 두 가지 짐을 동시에 지고 살아가는 청소년한부모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자 '부모'라는 이중의 책임 앞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글·사진. 한부모가족지원팀 유호정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첫 시작

우리금융그룹과 동양생명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첫 청소년한부모 대상 사업입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우선 모집하고, 29세 이하 청년한부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업은 필수 지원 2개 항목과 선택 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참여자가 직접 필요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간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총 100명의 한부모가 최대 427만 원의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알차고 풍성한 필수 지원

필수 지원에는 경제·양육 기초교육과 1:1 경제 컨설팅을 제공하는 미래 설계지원, 웰컴 기프트 및 가정의 달 선물로 구성된 문화지원이 있습니다. 재무 설계와 신용 관리 등 경제교육은 물론, 기질 이해·영양 관리·성교육 등 양육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경제 컨설턴트와의 1:1 코칭을 통해 가정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웰컴 기프트는 콧물 흡입기와 체온계 등 필수 양육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각 가정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 마음에 쏙! 내 마음대로 고르는 선택 지원

선택 지원은 건강생활 지원, 심리·정서 지원, 저축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하도록 돕는 건강생활 지원, 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심리 지원,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는 출산지원금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전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저축지원금은 필수 교육인 미래설계 지원을 이수할 경우 월 30만 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한부모 통합 웹 플랫폼 개발

이와 함께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더 많은 한부모가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통합 정보 플랫폼도 개발 중입니다. 온라인 교육과 함께 한부모 지원 정책과 민간 지원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현재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처럼, 홀트아동복지회는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수호천사가 되어 가족과 아동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이 걸음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필수 지원 항목 중 '웰컴 기프트'



필수 교육 미래설계 지원 중 양육 강의 화면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단단한부모'의 새로운 변화

배움이 자립이 되도록

단단하게
한 걸음씩



홀트아동복지회는 2021년부터 '단단한부모'를 통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부모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HD현대1%나눔재단과 함께 그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사진. 한부모가족지원팀 임소희



조향사

자립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지원, 정서멘토링

2025년부터는 기존의 '단단한부모'(이전 '똑똑한 엄마') 교육사업에 더해 정서 멘토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삶을 돌아보며 자기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총 7회의 전문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고 따뜻한 지지와 공감을 받으며, 자립을 향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단한부모'는 이제 교육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의 마음까지 함께 돌보는 사업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배움, 단계별 교육으로 전문성을 더하다

'단단한부모'는 참여자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사업에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지원했습니다. 심화교육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자립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에서는 기초교육에서 심화교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전문성을 쌓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립을 향한 배움의 순간들

'단단한부모'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자신감을 얻으며 자립을 향한 준비를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이 깊어질수록 이루고 싶은 목표가 더 많아지고, 더 큰 도전을 향한 의지도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희망찬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



피부미용자격증



소잉디자이너

*

희망을 연결하는 RE:PLAY, with 홀트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 후원을 위한 특별한 하루



#RE:PLAY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

#홀트 나눔참여 데이

지난 2월 4일,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홈구장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산 KCC와의 치열한 6강 경기 못지않게 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하프타임에 펼쳐진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의 3X3 휠체어농구 시범경기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인식 개선과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 지원을 위한 'RE:PLAY with 홀트 나눔참여 데이' 현장을 소개합니다.

글.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노진희 사진. 홍보팀 유시연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 지원 후원금 전달식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장애인 스포츠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외부에는 휠체어농구 체험, 홀트 보호작업장 상품 판매, 홀트아동복지회 홍보 등 체험형 부스들이 마련되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특히 인기가 많았던 부스는 윤택 홍보대사가 직접 농구공을 전해 주며 진행된 휠체어농구 체험부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며 도전했던 참가자들도 휠체어에 앉아 공을 던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휠체어농구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택 홍보대사가 함께한 휠체어농구 체험부스



직관하면 더욱 색다른 휠체어농구

경기 중간 하프타임에는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의 3X3 시범경기가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코트에 들어서는 선수단을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곧이어 휠체어농구 선수들의 플레이가 시작되자 응원의 박수는 곧 감탄의 박수로 바뀌어 코트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휠체어농구를 처음 보는 관중들은 생각보다 빠른 휠체어의 스피드에 한 번 놀라고 휠체어끼리 부딪치는 박진감과 격렬함에 두 번 놀랐습니다. 시범경기를 보인 휠체어농구단도 처음으로 자리를 가득 채운 만원 관중 앞에서 선보이는 경기에 흥분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의 김홍수 선수는 "앞으로 휠체어농구가 많이 알려져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면 좋겠다"라며 시범경기 소감과 휠체어농구의 관중 참여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윤택 홍보대사 시투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 후원금 전달

이날의 메인 이벤트는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후원금 전달식이었습니다. 이기완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 단장은 같은 지역에 있는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경기용 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고양 소노 프로농구단 팬 '위너스'와 함께 조성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번 후원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과 함께 장애인스포츠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응원의 한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양홀트휠체어농구단은 39년 동안 홀트아동복지회를 대표해 온 휠체어농구단입니다. 그 세월은 한국 장애인스포츠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구단은 여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39년을 달려온 선수들의 휠체어가 멈추지 않도록, RE:PLAY 캠페인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양홀트휠체어농구팀 3x3 시범경기



예술로 피어나는 가능성, 아르떼아카데미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빛나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손울림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아르떼아카데미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1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창작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아르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으로서, 참여자들이 예술가로 성장하며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사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자립지원팀 이수빈

상상미술, 그림으로 나를 표현하다

상상미술은 회화 중심의 창작 활동으로 참여자가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발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해 자유롭게 표현하며, 완성된 작품은 복지관 1층 '갤러리 비상'에서 열리는 연례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스타벅스 그림 공모전 및 경기 미술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외부에서도 작품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르떼아카데미-상상미술

생활도예, 흙으로 빛나는 일상의 예술

생활도예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손으로 직접 점토를 다루고 형태를 빚으며 집중력과 성취감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창작 활동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완성된 작품은 전시와 판매로 이어집니다. 전국 장애인 도예 공모전 수상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르떼아카데미-생활도예

디지털드로잉, 디지털로 펼치는 새로운 창작 세계

디지털드로잉은 태블릿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선 드로잉, 일러스트, 이모티콘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창작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부터는 두 개 반으로 확대 운영되며, 참여자들이 제작한 개성 있는 작품은 SNS와 온라인 전시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만납니다.



아르떼아카데미-디지털드로잉

국악예술단 '손울림', 손끝에서 시작된 울림

국악예술단 '손울림'은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던 발달장애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면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재능이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관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이 국악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기량을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2월, 창단된 손울림은 20~30대 발달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야금·양금·해금·대금·소금·타악기를 연주합니다. 단원들은 직장이나 주간활동센터 등 바쁜 일상 중에도 매주 복지관에 모여 정기 연습을 통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함께 손을 모아 아름다운 울림을 만든다'라는 뜻이 담긴 이름처럼 단원들은 국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의 성과도 눈부십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스페셜K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2024.7)부터 서울 국악축제 발달장애인 부문 대표 초청 공연(2025.6),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총회 공연(2025.9), EBS 스페이스홀 제1회 정기공연(2025.11)까지. 이 모든 무대가 단원들에게는 전문 장애예술인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

작고 조용한 씨앗으로 시작한 아르떼아카데미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씨앗으로 시작한 아르떼아카데미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예술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온전히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BS 스페이스홀에서 개최된 제1회 손울림 정기공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아동의 놀 권리 지키는 '오늘은 노는 날!'

아동의 놀이와 여가 위한 놀이 문화 전파 프로그램

아이들에게 노는 것은 권리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모든 아동이 놀이와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일상을 채우면서 몸으로 뛰어노는 경험은 줄어들고, 전통놀이 문화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놀이 문화를 되살리고 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은 노는 날!'을 시작했습니다. 글·사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복지2과 권정은



준비를 없이 노는 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경찰과 도둑', '지우개 피구' 등 몸을 움직이며 또래와 즐길 수 있는 놀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동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배우며 놀이의 즐거움과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노는 날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 통합형 놀이 활동으로 '가위바위보 야구', '사랑합니다 왜요', '바나나 슬래잡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어린 시절 경험했던 놀이를 자녀와 함께 나누며 놀이가 가족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노는 날

또래 간 협동과 관계 형성을 위한 '접어 놀이', '여우야 몇 시니' 등의 놀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놀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 경험을 쌓으며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우야 몇시니



도깨비 씨름



가족 운동회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놀이 행사로 '과자 따먹기', '장명루 만들기', '도깨비 씨름' 등 전통놀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세대 간 놀이 경험을 공유하고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일상에서 함께 놀이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놀이에 참여하고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건강한 놀이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아동들이 더 주도적이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놀이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경찰과 도둑



지우개 피구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나눔과 배려가 꿈나무처럼 자라는 교실

‘꿈나무나눔실천교실’에서 피어난
나눔의 씨앗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손에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꿈나무나눔실천교실’을 통해 반송 지역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왔습니다.

글·사진.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기획총무팀 김희은



일상 속에 스며든 나눔

어색한 첫 만남. 아이들에게 ‘나눔’은 멀고도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는 나눔 수 있는 게 없어요”라며 망설였지만, 12회기 동안 다양한 대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며 아이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배워갔고, 어느새 “나도 할 수 있어요”라는 따뜻한 자신감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언젠가부터 활동은 아이들의 ‘나눔 자랑하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의 지우개를 찾아주고, 어르신에게 엘리베이터를 잡아드리는 행동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실천은 아이들 안에 따뜻한 변화와 확신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꿈나무나눔실천교실 수료식



노인과의 나눔-액막이명태만들기

노인에 대한 이해-노인유사체험



마음을 담아 전한 나눔

아이들은 직접 만든 선물을 전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모두 예쁘다고 해서 두 개 다 줬어요”라며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양보했고, 그 선물을 복지관 이용인들에게 보낼 때도 “받으신 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선물 만들기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 선물이 전달될 순간까지 마음을 담았습니다. 활동 과정에서도 나눔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느린 친구를 기다려주고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 속에서 배려는 배움이 아닌 실천이 되었습니다.



체험으로 만난 또 다른 일상

나눔의 중요한 요소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애인 체험과 노인 유사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힘겨운 하루가 될 수 있음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아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나눔과 배려가 서로 다른 말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나눔’은 교과서 속에 머무는 단어가 아닙니다. 작은 친절과 기다림, 그리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 숨 쉬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고 싶은 그 따뜻한 마음이 꿈나무처럼 계속해서 자라나,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어온 15년, 꿈이 현실로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장학 지원이 만들어낸
세 청소년의 변화 이야기



림무영 김차이의 방과후 교실 수업 장면



캄보디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대학 진학은 선택이 아닌 포기입니다.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꿈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의 장학 지원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던 세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사진, 국제개발협력팀 이소민

약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림무영 김차이
Limmuong Kimchhay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란 김차이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가정 형편상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꿈은 눈앞에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때 찾아온 기회가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장학금이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교재를 사고 연구를 준비하며 대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약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김차이는 현재 프놈펜 캄볼 지역에서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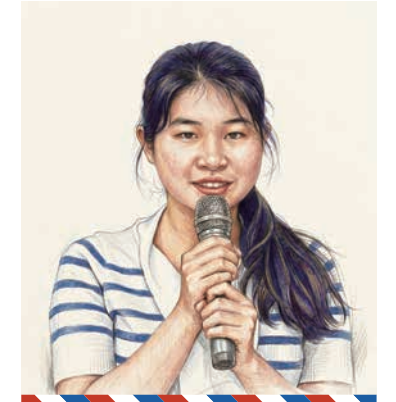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레이 라타
Serey Ratha

칸달 지역 작은 마을에서 자란 라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홀로 가족을 책임진 어머니의 어깨는 무거웠고, 라타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중등교육 과정에서만 세 번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는 어머니와 나눈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장학금은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타는 금융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했고, 학업에 집중하는 한편 캠퍼스 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자신감을 얻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삶에
길이 생겼습니다



비락 불린
Virak Bulin

평범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비락에게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다시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신청한 홀트드림센터 장학금이 그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비락은 국립경영대학교에서 회계·감사 전공으로 진학해 무사히 졸업했고, 현재는 캄보디아 대기업 칩몽그룹(Chip Mong Group)에서 회계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가족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캄보디아의 청소년들을 지원해 준 홀트드림센터의 장학금은 교육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에게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기회가 되고 한 가정에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희망이 되며 한 사회에는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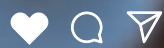


시각장애 아버지와 두 자녀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의 눈이 된 아이들'

위기가정지원
캠페인



글·사진. 나눔기획팀 김지수

*

갑자기 찾아온 시각장애,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
4년 전, 아빠에게 갑자기 찾아온 시각장애. 수진이가 네 살, 민재가 두 살이던 해, 급성 녹내장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아빠는 아내마저 가정을 떠난 후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도 있었지만 아빠는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힘들어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키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

아빠 곁을 지키는 아이들

한때 개발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빠는 시각장애로 한순간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 매일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빠에게 현실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수진이와 민재는 이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의젓한 초등학생으로 자라나 아빠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일상 속에서 아빠의 눈이 되어 줍니다. "우리 아빠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고, 뜨거운 물을 쓰는 일이나 칼을 써야 하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아빠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려고 해요."



*

"의사가 되어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고 싶어요"

학교에서 상장도 받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는 수진이와 민재. 수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의 눈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빠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면서도 더 해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마음 한편이 아픕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 해주고 싶지만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는 준비물부터 갑작스러운 병원비, 아이들의 성장을 따라가야 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수진이 가족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을 끝까지 키우려는 아빠, 그리고 아빠와 함께 살고 싶은 두 아이는 오늘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걸어갑니다. 수진이 가족이 흔들리지 않고, 곳곳이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본 캠페인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의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해 가명 및 대역 촬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수진이네 후원하기



선 홍보대사와
함께 위기가정아동
지원

선 홍보대사와 함께한 '밸런타인데이 기부런' 참가자 단체사진

달릴수록
커지는 사랑,[♡]

밸런타인데이
기부런



초봄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발걸음들이 한강 위로 힘차게 이어졌습니다. 202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서울 세빛섬에서 밸런타인데이 기부런이 열렸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선 홍보대사와 100여 명의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초콜릿 대신 달리기로 위기가정아동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글·사진: 홍보팀 유시연



기부런 참가비 전액은 위기가정아동을 돕는 후원금으로, 총 378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은 위기가정아동의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완주 후에는 선 홍보대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페레로로쉐 초콜릿과 파워에이드, 단백질 셰이크 곶박고밥을 건네며 수고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행사 막바지에는 특별한 선물로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멀티 비타민 센트룸 6종 세트가 증정되며 현장은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밸런타인데이, 달리기로 사랑을 전하다

사랑을 전했던 성인 발렌티누스를 기리는 데서 유래한 밸런타인데이의 참된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밸런타인데이 기부런은 그 정신을 담아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시민들과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른 아침부터 남녀노소 다양한 참가자들이 세빛섬에 모여 출발을 기다렸고,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활기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발걸음이 모여 희망으로

참가자들은 2.14km 또는 5km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한강을 달렸습니다. 특히 2.14km 코스는 밸런타인데이 날짜를 담은 상징적인 거리로,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전했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참가자들은 선 홍보대사의 출발 신호에 맞춰 힘차게 달려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쌀쌀한 바람에도 참가자들의 "파이팅!"을 외치는 목소리와 밝은 웃음소리가 한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리는 속도는 저마다 달랐지만, 위기가정아동을 돕고자 하는 마음의 속도는 모두가 같았습니다.

그림 편지로 전한 감사의 마음

이날 기부런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것은 위기가정아동이 직접 보내온 그림 편지였습니다. "선 삼촌, 함께 달려주신 이모, 삼촌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멋진 어른이 될게요." 작은 고사리손으로 꼭꼭 눌러쓴 메시지는 참가자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땀 발걸음이 위기가정아동의 일상에 희망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특별한 하루를 경험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위기가정아동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과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아동 수진이의 그림 편지

졸업,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



국내결연과
함께 성장한
아동 18명의 새로운
출발 이야기

홀트아동복지회 국내결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동이 배움을 이어가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원자와 아이를 연결합니다. 학습비와 생활비 지원부터 진로 탐색과 자립 준비를 위한 졸업 지원금까지, 결연은 단순한 후원이 아닌 아동의 성장을 함께하는 오랜 동행입니다.

글. 나눔지원팀 권소현 이미지. 홍보팀 남지인

※ 해당 이미지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를 활용해 성장 후 미래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두렵지 않아요”

지난 3월, 국내결연을 통해 평균 8년간 지원을 받아온 아동 18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진학, 취업 및 자립 준비, 군 입대 등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서윤(가명) 아동은 2019년부터 결연 후원으로 학습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꿈인 서윤이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아동복지 분야 취업을 목표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두렵지 않아요. 받은 도움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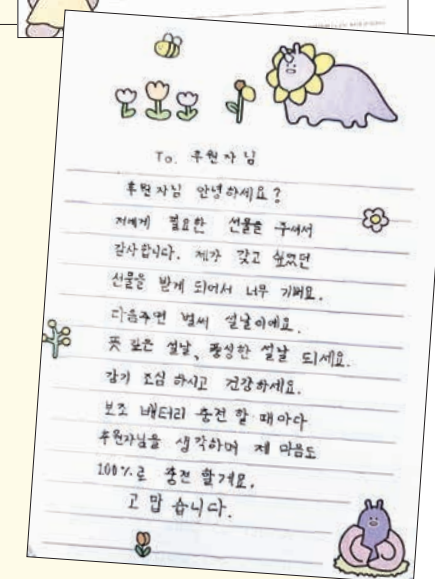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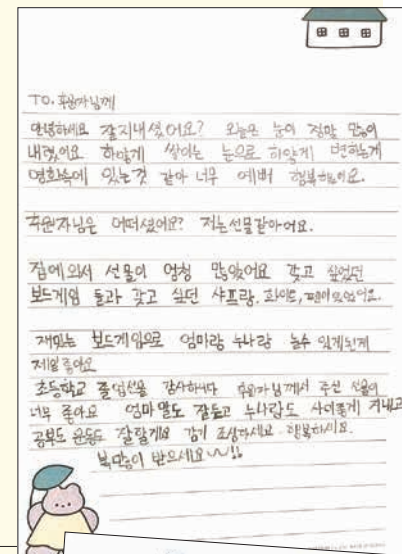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유나(가명) 아동은 2018년부터 결연 후원을 이어오며 애니메이션 분야의 진로를 준비했습니다. 학원비와 도시비를 지원받으며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애니메이션과 진학이라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후원자님의 응원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정민우(가명) 아동은 2016년부터 생활비와 축구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꾸준히 훈련을 이어온 민우는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훈련을 이어가며 축구선수의 꿈을 계속 키워갈 예정입니다.

결연이 만든 변화

결연 후원은 한 아이의 성장에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결연 후원을 통해 실제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평균 4.59점,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9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피아노를 배우고 싶던 아동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며 한층 밝아졌고, 발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동이 치료와 교육을 이어가며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결연은 아이들의 일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아이들은 학업을 이어가고,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선택한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순간마다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만드는 자립의
'날갯짓'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8기 오리엔테이션 단체사진(2025)

HYUNDAI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

더 많은
파랑새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많은 청소년들은 막막함과 마주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설청소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파랑새, 꿈날')은 바로 그 순간, 청소년들의 지원군이 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글·사진, 나눔기획팀 이예림

아동복지를 향한 진심, 재단 설립으로 이어지다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은 오래전부터 아동복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현대백화점그룹의 뜻을 이어, 2006년 정몽근 명예회장과 정지선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입니다. 흩어져 있던 계열사별 아동복지사업을 하나로 모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출범했으며, 이후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 지원, 봉사활동 등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로·정서·경제, 삶 전체를 함께 준비하다

2018년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시작한 '파랑새, 꿈날'도 그 진심 어린 행보의 일환입니다. 보호종료를 앞두고거나 보호가 끝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삶 전체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진로·학업 준비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다지며, 심리·정서 멘토링으로 마음도 키웁니다. 또한 자립캠프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도 쌓아갑니다.

받은 응원을 더 큰 울림으로 잇다

경북 안동에서 트롬본 연주를 꿈꾸던 한 청소년의 이야기는 이 사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레슨비와 악기 관리비의 부담 앞에서 '계속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반복하던 그에게 '파랑새, 꿈날'은 2년간 경제적 지원은 물론, 따뜻한 멘토링과 응원으로 함께했습니다. 입시의 불안과 압박을 이겨낸 그는 올해 서울 소재 대학교 음악대학 트롬본 전공에 당당히 입학했고, "앞으로 위로와 힘을 전하는 연주자가 되어 받은 응원을 더 큰 울림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8년간 263명의 청소년과 동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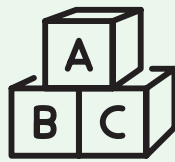
2025년까지 총 263명의 청소년이 이 사업을 통해 자립을 준비했으며,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은 8년간 누적 약 18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사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한 이 오랜 헌신은 2025년 12월, '제5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으로 공식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파랑새가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은 함께 날갯짓을 응원해 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은 더 많은 시설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8기 성장발표회(2026)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 태원이의 한 걸음



SeAH

세아 가족의 따뜻한 나눔이 태원이의 세상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치료를 이어가며 몸에 힘이 생기고 말이 늘어난 태원이.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그 변화가, 가족에게 가장 든든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사진. 나눔기획팀 이재영

세아 임직원의
모금 캠페인
'나눔세아'



병원에서 시작해 병원에서 끝나는 태원이의 하루

태원이는 골덴하르증후군과 뇌병변 장애로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언어와 인지 발달이 늦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몸의 균형을 잡거나 걷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언어·인지·작업·물리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오가는 태원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어린이 집에서 뛰어노는 평범한 하루가 태원이에게는 어렵게 버텨내야 하는 치료의 시간입니다. 병원 복도를 이동하는 일조차 쉽지 않지만 반복적인 치료와 훈련으로 태원이는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재활치료, 특히 발달재활치료 중에는 비급여 항목도 적지 않아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재활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준 '나눔세아' 캠페인

태원이 가족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2025년 8월 세아의 지원이었습니다. 2024년 '나눔세아'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에 기업의 매칭 그랜트(동반 후원)가 더해지며, 태원이는 발달재활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아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2015년부터 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세아 임직원이 나눔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홀트아동복지회는 나눔세아 캠페인의 방향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함께 선정하고 경제적 지원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모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

지원 이후 태원이에게는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좋아지면서 식사가 한결 수월해졌고, 몸을 지탱하는 힘도 점차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균형 잡는 연습을 이어가며 혼자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약 20개의 단어만 말하던 태원이는 이제 50개가 넘는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엄마 주세요", "싫어"처럼 짧은 문장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반가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던 태원이에게 처음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고,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가족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비록 작은 변화지만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순간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늘고 몸의 움직임이 점차 자연스러워지며 친구와 함께 웃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에는 세아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아 가족의 응원 덕분에 태원이는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말이 늘고 친구가 생기며 세상과 소통하는 힘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태원이는 하루하루 자신의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태원이의 오늘을 지지하는 마음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결혼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는 탐리더스
장아인 위원

나눔으로
더 빛난



가장 행복한
결혼식

장아인 위원은 2025년 11월 24일, 결혼식의 설렘과 기쁨을 행사로 치르는 대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홀트아동복지회 탐리더스 위촉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행복한 날을 나눔으로 채운 장아인 위원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글·사진. 임팩트기금팀 이세화

요가로 깨달은 공존의 삶

장아인 위원은 '아인요가'(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표이자 국제 요가협회의 자격을 갖춘 요가 전문가입니다.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수강생들의 호흡과 감각에 집중하는 수련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4년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요가는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서로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공존의 느낌이 나눔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듯,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작은 힘이 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 결혼식을 실천하다

장아인 위원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느낀 '삶의 감사'를 더 낮은 곳으로 나누고 싶어 홀트아동복지회에 장아인 기금 5,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내 위기가정아동과 장애인가정을 돕기 위한 뜻깊은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누려온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에 기부 역시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도 흔쾌히 함께하며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과정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새 출발을 나눔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선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첫걸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온 홀트와의 인연

장아인 위원과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인연은 학창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홀트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연스럽게 홀트 가족을 만나왔습니다. “홀트 장애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고 나눔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오랜 시간 홀



이진·장아인 부부의 고액후원자 탐리더스 위촉식

트에 기부와 봉사를 이어 왔습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장애인들을 돌보는 직원들의 모습과 투명한 사업 운영을 곁에서 지켜보며,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나눔을 통한 아름다운 선순환

“후원이나 봉사활동이 지금 당장의 삶을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마음먹은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험은 나눔을 통한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자신의 특별함과 온전함을 느끼고 선한 흐름 속에 살아가기를 응원한다는 장아인 위원. 그 행복한 선택은 장아인 기금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더 큰 희망을 전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그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홀트 가족의 든든한 이웃,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분당우리교회에서 19년간 목회 훈련을 받은 신종철 목사가 2022년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홀트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섬기고 있습니다.
글·사진. 임팩트기금팀 이정미

신종철 목사가 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과 섬김 이야기

하나 홀트아동복지회



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가치를
한결같이
트·버다 홀트 부부의 소중한 뜻을 받아
독한 삶을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Holt Children's Welfare Association carries on with Harry Holt (the founder of Holt) and Bertha Holt's mission to provide happy lives for every child in the world. Harry Holt believed that every child must be raised in a loving family and that we should carry on their beliefs to save precious lives of children.

한 세상에 기여한다.
A warm and happy society

4년간 누적 후원 8억 2,612만 원,
80회 이상 봉사로 장애인들과 동행

주님의 교회는 설립 이후 4년 동안 장애인·자립준비 청년·취약계층을 위해 누적 8억 2,621만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330명을 대상으로 80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문화·여가 지원, 지역사회 통합 행사도 꾸준히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교인 70명이 속한 '홀트 예배부'는 예배와 행사 지원, 퇴소 장애인 가정 방문, 시설 장애인 산책 도우미, 홀트학교 종일반 학생 하원 도우미 등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며 홀트일산복지타운 이용인들의 일상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작은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처음 홀트아동복지회의 사역을 접했을 때 가슴에 와닿은 것은 '진정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품고 곁에서 동행하는 귀한 실천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신종철 목사는 설립자 해리 홀트 할아버지의 기도로 세워진 홀트아동복지회의 사역은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품어야 할 일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를 맞이하는 신종철 목사와 홍명보 군



홀트일산복지타운에 거주하며 주님의 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이웃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 마스크트' 홍명보 군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 '어디디야 찬양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신앙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장 작은 이웃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소망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이 고백처럼 섬김을 이어가는 힘은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섬김이 특별한 봉사가 아닌 자연스러운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목사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 깊이 남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홀트 가족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 본부



서울후원회와 함께하는 2026년 신년하례식 개최

1월 7일, 서울후원회와 함께하는 2026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새해를 여는 이수진 고문의 기도에 이어 40년간 봉사와 후원으로 헌신해 온 박영옥 고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후원회와 전 직원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서울후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의 사명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서울후원회와 함께 사랑과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 본부



IBK기업은행-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후원금 전달

1월 12일, IBK기업은행과 위기미혼모자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IBK기업은행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 대학·대학원 고등교육 통합지원사업 '드림플러스'에 사용되어 미혼모자 가정과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 본부



홍보대사 가수 신성 공식 팬클럽 '뉴스타' 후원금 전달

3월 26일, 홍보대사 가수 신성의 공식 팬클럽 '뉴스타'의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과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팬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마련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응원하는 마음을 사회적 나눔으로 확장시킴에 기부에 적극 동참한 뉴스타 팬클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부



신종철 목사 '홀트 서울·수도권 교회협력위원장' 위촉

주님의 교회 신종철 담임목사를 홀트 서울·수도권 교회협력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2022년 설립 이후 약 4년간 기부와 봉사로 장애인·자립준비청년·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섬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종철 목사를 중심으로 더 많은 교회가 아동과 가족, 장애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역에 동역하며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본부



(주)서호건설산업, 국내위기가정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

1월 29일, (주)서호건설산업과 국내위기가정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내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국내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주)서호건설산업에 감사드립니다.

▶ 본부



이웃집브런치,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대상 후원금 전달

2월 25일, 브런치 뷔페 레스토랑 '이웃집브런치'(이원준 대표)가 자립준비청년 대학·대학원 통합지원사업 드림플러스를 위해 100만 원을 후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습니다. 과거 보육원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을 이어온 이원준 대표는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꿈을 응원하는 후원에 함께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신 이웃집브런치에 감사드립니다.

▶ 기부 연합



취약계층 통합위기 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 추진

부산·대구·충청·인천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위기 지원사업 '또 하나의 가족'을 전국 단위로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주거·의료·돌봄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공적 지원체계의 시간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위기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구지부



복된교회와 함께한 홀트가족사랑예배 with 박요한 목사

2월 22일, 대구 복된교회(담임목사 송영중)에서 박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박요한 목사는 진솔한 신앙 간증을 고백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고,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충청지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행
1월 30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 자립을 준비 중인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취업 준비를 돕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해양교통안전 분야 소개와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련 직무와 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진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향후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데 도움을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감사드립니다.

▶ 홀트강동복지관



‘허브(HUB)’ 성과공유 및 성장지원금 전달식
2월 20일, ‘2026년 국내결연사업 허브(HUB) 성과공유 및 성장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9년부터 이어온 결연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결연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격려 메시지를 전했고, 참여 아동들이 직접 작성한 ‘캘리그래피 감사 엽서’를 보호자와 후원자에게 전달해 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파라다이스 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설맞이 ‘효(孝)드림’ 행사
2월 11일, 파라다이스 복지재단과 함께 설맞이 ‘효(孝)드림’ 행사를 진행하고, 명절 선물 세트를 지역 어르신과 복지관 이용자 20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2026년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지정 기탁 후원금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의 고독감 해소와 정서적 지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안부를 확인하며 선물을 전달해 어르신들의 외로움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아침들



아침들 가족과 함께한 입소아동 백일잔치
2월 4일, 입소 아동의 백일잔치가 있었습니다. 백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아기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낸 엄마에게 아침들 가족들이 함께 축하를 전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시간에는 모두가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작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 크고 깊은 사랑을 알게 해준 소중한 아이들과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양육의 길을 선택한 한부모를 위해 언제나 아침들이 함께하겠습니다.

▶ 대구클로버



눈꽃 세상으로 떠나는 ‘무아마운틴파크 나들이’
2월 6일, 아이들의 봄방학을 맞이하여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겨울 눈놀이를 다녀왔습니다. 하얗게 펼쳐진 눈꽃 풍경 속에서 아이들은 눈놀이를 즐기며 환하게 웃었고, 엄마들도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의 정서적 침과 행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를 통해 가족들은 함께 웃고 추억을 쌓았으며, 모자간 유대감 강화와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광주클로버



2년의 노력 끝에 이룬 한부모 엄마의 빛나는 졸업
2월 20일, 양육과 학업을 병행해 온 입소자가 2년의 노력 끝에 사회복지과 졸업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흔들림 없는 끈기와 의지로 모든 고비를 깨끗이 이겨냈습니다. 엄마의 가장 큰 버팀목인 세 살배기 자녀도 어느덧 건강하게 성장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엄마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엄마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 대전클로버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눔 프로그램 진행
2월 13일, 설 명절을 맞아 만두 빚기와 명절 음식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만두 모양을 보며 웃음을 나누고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만두와 명절 음식을 함께 먹으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에게 따뜻한 덕담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전클로버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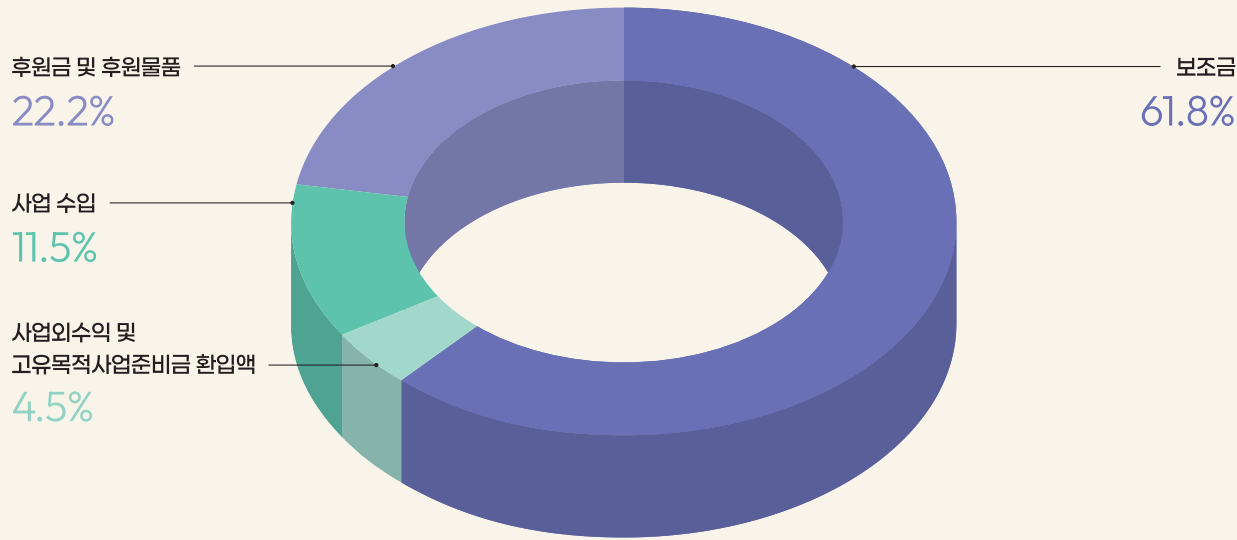


대전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월 11일, 대전시립교향악단 앙상블과 함께 지역사회 한부모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연주하며 참석한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부모가족들은 음악회를 통해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위로와 문화적 즐거움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전시립교향악단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운영결산보고

2025 수입 합계

총 78,593,155,5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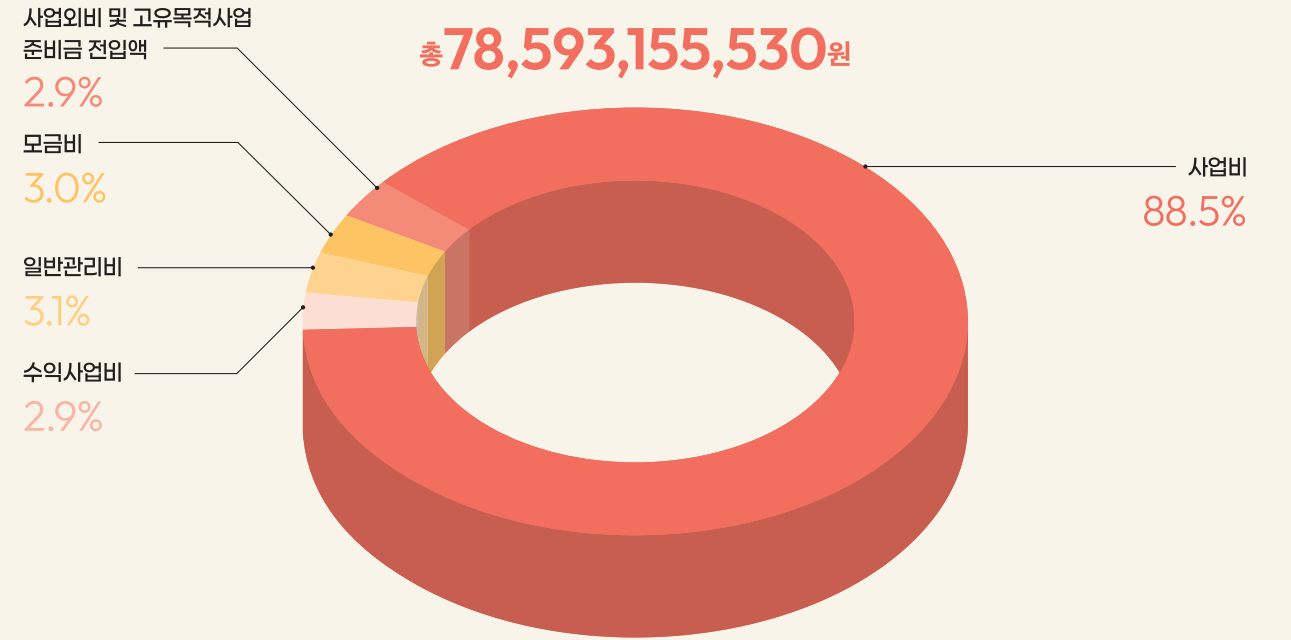
수입 세부 내역

구분	내용	금액(단위 원)	
후원금 및 후원물품	후원자·단체·기업 등의 정기·일시 납입 후원금 및 후원물품	17,412,634,025	
세부내용	아동·청소년복지	국내·외 아동·청소년 지원 후원금	12,654,581,024
	장애인복지	장애인 재활·치료·자립 지원 후원금	1,338,230,359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지원 후원금	1,431,694,073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후원금	301,855,529
	후원물품	개인 및 기업의 후원물품	1,686,273,040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8,567,491,859	
사업 수입	사업 수입	9,077,330,070	
사업외수익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이자 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3,535,699,576	
합계		78,593,155,530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5항(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및 제50조 3항(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에 따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고 있습니다.
- 연1회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2025년도에는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으며 투명한 회계관리 및 성실한 사업보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 지출 합계

총 78,593,155,530원



지출 세부 내역

* 당기운영이익(-0.4%)은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내용	금액(단위 원)	
사업비	국내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사업 진행 등	69,562,709,963	
세부내용	아동·청소년복지	국내·외 아동·청소년 양육, 의료, 자립 지원 등	10,234,914,347
	장애인복지	장애인 재활·치료·자립 지원 등	26,595,259,941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지원, 사례관리 지원 등	17,523,194,305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 생계, 아동양육, 자립 지원, 거주시설 지원 등	3,284,719,347
	가족복지	가족복지 지원 등	28,387,292
	보육·교육	장애인 특수학교, 어린이집 지원 등	11,896,234,731
모금비	모금 기획 및 관리 운영, 후원 서비스 제공 등	2,332,703,667	
일반관리비	사업 기획 및 수행을 위한 운영 관리비 등	2,467,645,659	
수익사업비	수익사업 운영 등	2,264,107,538	
사업외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사업외 기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등	2,292,840,633	
당기운영이익	당기운영이익	-326,851,930	
합계		78,593,155,530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지역사회 등 지원
- 해외후원** 해외 취약아동의 교육 및 가정자립 지원, 해외 4개국 4개 해외사업장 운영
- 결연후원** 국내 해외 아동에게 교육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 고액후원**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가치 실현에 기여
- 기업후원**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기부, 공동기획, 임직원 참여 캠페인 등) 추진
- 교회후원** 교회 성도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
- 특별한 후원** 생일, 결혼, 출산, 첫돌, 팬덤 등 기념일 후원
- 유산기부**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에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천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사

정용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스티브 모리슨(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감사

장재훈(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본부 02-331-7000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032-277-1391

홀트미추홀 032-548-1601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인천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32-713-4145

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53-756-0184

대전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42-586-1983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02-331-7040

(몽골,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MOM is WOW

한부모가족 지원 캠페인

혼자서 세상을 감당할 용기

홀로 서는 엄마에게,

함께하는 용기를 선물해 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후원하고
캥거루 키링받기



IBK가
바뀔
삶.

나는 요즘, 고민 없이 사는 중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월 적립 한도 없이

IBK포인트3.8로
고민 없이

1.5% 적립 받는 삶,

내 일상이 되다



IBK포인트 3.8



이 모든 혜택은 카드앱에서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6-C1d-03519호(2026.03.17.~2027.03.16.)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2026-1725호(2026.03.10.) [유효기간: 2027.03.02]

* 연회비 : 국내전용(BC) 3만 7천원, 해외전용(VISA, Master) 3만8천원 · 정월 상저 50만원 이상인 경우 혜택 제공 · 전월상저 및 통합 월 환인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화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합정 최고금리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개월) 유지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야율과 상호금융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 대출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정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린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